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양의 중세 시대에 인간이 마음의 평정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신에게 의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인간은 신을 위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진리를 찾으려는 학문의 목적 역시 신의 질서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명증한 진리는 없어 보인다면 진리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이는, 고대 회의주의 철학인 피론주의(Pyrrhonism)가 새롭게 관심을 받게 되면서 신 중심의 세계관이 흔들리게 된다.

㉠ 피론주의자들은 인간들이 진리를 찾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진리를 찾았거나, 진리가 없다고 포기하거나, 계속해서 진리를 찾는’ 세 가지 경우라고 한정하였다. 그들은 진리를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나친 독단주의라고 비판하면서 계속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진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진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피론주의자들의 주장은 모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어떤 명제(p)와 그 명제의 부정(~p)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배중률을 고려하면 p와 ~p 중 하나는 참이라는 점에서 진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피론주의자들의 주장은 거짓이 된다. 또한 피론주의자들의 주장이 옳다면 그 주장 자체가 참이 되어, 적어도 1개 이상의 참인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피론주의자들의 주장은 거짓이 된다.

그렇다면 왜 피론주의자들은 진리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을까? 그들은 어떤 명제가 참인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의심할 바 없이 뚜렷하게 증명되는 명증성을 지녀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명제들을 상충 또는 대립시켜 명증성을 확인하려고 하였고, 지속적으로 진리를 의심하는 방법으로 진리를 찾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러 명제들은 대립되고 모순되기 때문에 어느 쪽도 다른 명제에 비해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으므로, 어떤 명제도 명증성을 지닐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들은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회의적 상태에 이르게 되고 결국 진리는 없어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피론주의자들은 이처럼 진리를 판단할 수 없는 판단 중지 상태를 에포케라고 일컬었다. 에포케는 어떤 명제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로 그들은 진리에 대해 판단을 중지하면, 진리를 얻기 위한 고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 상태인 아타락시아가 오게 된다고 생각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세 시대에는 마음의 평정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신에게 의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피론주의로 인해 인간 스스로에 의해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이는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하여 인간이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 데카르트와 같은 철학자들은 고대 피론주의의 진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깊이 있게 인간의 인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근대 철학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3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대 피론주의의 관점에서 근대적 인식론의 한계를 비판하고 있다.
- ② 고대 피론주의의 형성 배경과 발전, 쇠퇴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고대 피론주의와 중세에 부각된 피론주의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④ 고대 피론주의를 신 중심의 중세 철학이 계승하게 된 까닭을 밝히고 있다.
- ⑤ 고대 피론주의가 인간이 주체성을 획득하는 데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37. <보기>에서 ‘피론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다양한 명제들을 상충 또는 대립시켜 명증성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ㄴ. 어떠한 명제도 다른 명제에 비해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ㄷ. 고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 상태에 이르면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ㄹ. 어떤 명제가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의심되지 않는 명증성을 지녀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8. <보기>는 ㉡에 대한 설명이다.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데카르트는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 확실성을 가진 ‘기초적 믿음’을 찾기 위해 진리에 대해 의심해 보는 회의적 사고를 통해 진리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찾은 기초적 믿음은 사유하는 존재 자체는 의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다른 진리 추구의 토대가 되었다.

- ① 배중률을 통해 진리를 증명하였다.
- ② 기초적 믿음이 신의 질서라고 여겼다.
- ③ 사유의 과정에서 의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 ④ 진리는 존재하지만 파악될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
- ⑤ 진리의 존재를 확신하며 근대 철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14 수능(예비) B형 19~21번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식적으로는 자신에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대로 세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회의론에서는 그 보고 듣고 느끼는 세계가 모두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옹호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회의론은 근세 철학의 창시자인 [데카르트]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그는 의심이 전혀 불가능한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해 체계적으로 의심하는 방법을 만들었다. 즉 의심할 수 있는 이유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의심해 보는 것이다.

그가 의심한 첫 번째 범주의 지식은 감각에 의해 생긴 지식이다. 휴대 전화가 없는데도 벨소리가 들릴 때가 있는 것처럼, 감각은 우리를 종종 속이므로 감각적인 증거를 토대로 생긴 지식은 믿을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는 사실까지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이에 대해서도 데카르트는 꿈에서 똑같은 종류의 감각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있다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사실 나는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감각적인 증거를 토대로 생긴 지식은 믿을 수 없다.

감각적 지식만이 지식의 전부는 아니다. 예컨대 우리의 지식 중 수학의 지식은 감각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데카르트의 의심에서 무사히 벗어날지 모른다. 내가 깨어 있을 때나 꿈속에서나 2 더하기 3은 5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수학의 지식마저도 의심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악마가 존재하여 사실은 2 더하기 3은 4인데 우리가 2에 3을 더할 때마다 5인 것처럼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악마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는다면 상상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아무리 의심을 해도 의심하는 사람의 존재에 관한 의심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만약 그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악마도 그를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의심하고 있다면 그는 존재함에 틀림없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 자신의 존재는 그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다.

그런데 데카르트가 찾은 이러한 존재의 확실성의 토대는 그리 튼튼한 것 같지 않다. 그의 결론대로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생각하는 ‘나’가 항상 같은 ‘나’라는 보장이 있을까? 생각하는 ‘나’가 존재한다고 하면 지금 생각하는 ‘나’와 5분 전에 생각하던 ‘나’는 똑같은 사람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5분 전에도 ‘지금의 나’가 생각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지금 생각하는 ‘나’와 5분 전에 생각하던 ‘나’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데카르트의 체계적 의심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좀 더 철저히 의심하면 영속적인 나의 존재는 보장되지 않는다. 그는 회의를 시작했지만 [절제한 회의론자]가 되지는 못했다.

19. 위 글의 집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학자가 의심하는 명제가 다른 학자들에게는 확실한 명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 ②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체계화된 이론을 정립할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 ③ 상식적인 개념을 제시한 후 그 개념을 분석하여 대립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 ④ 어떤 학자가 주장한 이론을 소개하고 그 이론이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 ⑤ 대립하는 두 이론의 장점만을 취하여 하나의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20. 위 글의 ‘데카르트’와 ‘절제한 회의론자’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꿈속의 지식 중에는 감각적 지식이 아닌 것도 있다.
- ㄴ. 어떤 지식을 상상만으로 의심할 수 있다면 그 지식은 확실하지 않다.
- ㄷ. 의심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에서 의심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 ㄹ.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의심할 수 있다.
- ㅁ. 영속적인 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ㄷ
- ④ ㄱ, ㄹ, ㅁ ⑤ ㄴ, ㄹ, ㅁ

21.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나의 뇌가 몸에서 분리되어 양분이 공급되는 큰 통 안에 동동 떠 있고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통 속의 뇌’에서는 나의 경험을 모두 컴퓨터가 조작해 내고 있다. 가령 나는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컴퓨터가 만들어 낸 환상이다.

- ① ‘통 속의 뇌’와 같은 상황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의심한 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겠군.
- ② ‘통 속의 뇌’의 세계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실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
- ③ ‘통 속의 뇌’를 조작하는 컴퓨터는 데카르트가 말한 ‘악마’에 해당하겠네.
- ④ ‘통 속의 뇌’의 세계에서는 2 더하기 3이 4이면서 동시에 5이겠어.
- ⑤ 우리도 그런 ‘통 속의 뇌’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겠군.

◆ 07년 9월 고2 47~50번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인간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지식들은 절대적이고 확실한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데카르트는 모든 지식의 정당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하는 철학적 반성을 시도하였는데, 이를 ‘방법적 회의’라고 부른다.

데카르트는 지식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경험적 원천을 통해 파악된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고, 둘째는 내적인 성찰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부의 마음 상태에 대한 내성적 지식이다. 셋째는 수학적 지식인데, 이는 외부 경험이나 내성을 통해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비경험적 지식이다.

경험은 때때로 우리를 기만하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경험적 지식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한다. 경험은 언제나 우리를 속일 가능성이 있다. 가령 돌이 담긴 컵 속에 막대기를 넣으면 막대기는 굽어 보이지만, 실재하는 막대기는 굽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은 외부 세계의 실재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기정해야 우리에게 나타난 바인 현상만을 보여 줄 뿐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데카르트의 논점은 우리 내부의 마음 상태에 대한 내성적 지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는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런 지식은 틀릴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분명히 나는 아프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은 착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성적 지식 역시 지식으로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경험에 근거한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이나 내성적 지식뿐만 아니라 비경험적 원천을 지녔다고 생각되는 수학적 지식에 대해서도 데카르트는 의심한다. 우리는 ‘ $2+3=5$ ’라고 당연하게 ㉡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 $2+3=6$ ’인데 인간이 계산할 때마다 악신(惡神)이 장난을 하여 ‘ $2+3=5$ ’라고 믿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악신의 존재 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 한 우리는 수학적 지식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과 경험을 통해 많은 지식을 배운다. 하지만 데카르트가 보여주었듯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는 지식들 중에서 우리 스스로가 분명하게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우리가 당연하게 지식으로 간주하였던 경험적 지식이나 내성적 지식, 나아가 수학적 지식조차도 지식으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면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진정한 지식이란 무엇이며, 그것에 도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단서를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에서 찾을 수 있다.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는 할 일 없는 철학자의 단순한 소일거리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지식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철학을 하고자 원하는 자뿐 아니라 지혜를 추구하는 이성적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방법적 회의가 필요하다. 그저 신념과 믿음에 불과한 것을 지식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를 내세운다면 이는 자신의 독단적 믿음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억압에 불과하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4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데카르트 철학의 의미를 밝히고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②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를 소개하고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 ③ 데카르트의 철학에 대한 기존의 평가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 ④ 데카르트 철학에서 방법적 회의가 갖는 위상을 규명하고 있다.
- ⑤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를 다른 방법론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48. ‘방법적 회의’에 주목하여 격언을 만들어 보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든 것을 분류하라. 그리고 통합하라!
- ② 현재를 반성하라. 그리고 경험을 존중하라!
- ③ 모든 것을 의심하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
- ④ 자신을 믿으라. 그러나 독선에는 빠지지 말라!
- ⑤ 존재를 회의하라. 그러나 허무에는 빠지지 말라!

49.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림에 그려진 산은 실제로 존재하는 산과 다르다.
- ② 같은 영화를 보고도 느끼는 감정은 사람마다 다르다.
- ③ 같은 나무라도 성장 환경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다르다.
- ④ 볼록거울에 비친 얼굴은 실제의 얼굴의 모습과 다르다.
- ⑤ 똑같이 두통을 앓아도 통증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50. ㉡과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은?

- ① 그는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한다.
- ②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설렌다.
- ③ 건강을 생각하여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
- ④ 다음 만남에서는 청혼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때로 삶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출전: 김영건 외 공저, 《철학으로 가는 길》

- 정답: 47.② 48.③ 49.④ 50.①

◆ 09년 9월 고2 30~32번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

철학자 데카르트와 컴퓨터가 바둑을 두고 있다. 컴퓨터가 둘 차례에 시간을 끝자 데카르트가 말했다. “바둑을 두던 컴퓨터는 어딜 갔지?” 컴퓨터가 반응했다. “난 지금 계산하는 중이요.” 데카르트가 증얼거렸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다면 컴퓨터는 계산한다. 고로 컴퓨터는 존재한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데카르트의 생각처럼 컴퓨터는 존재한다. 데카르트와 바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이런 의문이 생겼다. ‘지금 나와 바둑을 두고 있는 컴퓨터가 과연 내 앞에 존재하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은 내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닐까? 컴퓨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것을 의심하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컴퓨터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자아가 있을까?’

생명체의 몸은 다양한 세포들이 다양한 기관들을 만들면서 성장하고 변화한다. 그러면서 유기체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해 나간다.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가를 본능적으로 감지하여 몸이 반응한다. 이것은 모든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 본능적 자아의 기능이다. 본능적 자아는 관념적 자아와 구별된다. “나는 생각한다.” 또는 “나는 배고프다.”라고 하는 언어적 표현의 주체가 되는 자아는 관념적 자아이다.

인간의 자아의식은 관념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것은 관념적으로 만들어진 세계이며, 언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세계이다. 언어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은 관념의 세계가 구체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관념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나의 생각’, ‘나의 세계’, ‘나의 마음’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주관적 세계, 자율적 세계, 자기만의 세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데카르트에 의하면, 관념적 자아는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본능적 자아를 바탕으로 관념적 자아를 형성한다. 이렇게 볼 때 컴퓨터의 한계는 분명해진다. 인간만이 자주적이고, 자율적이며, 창조적인 존재일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30. 위 글의 특징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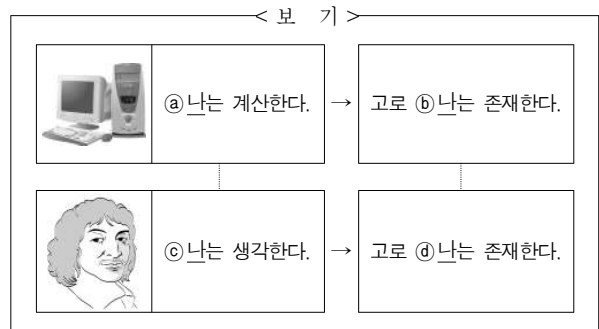
- ㄱ. 두 대상을 대비하여 서술하고 있다.
- ㄴ.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ㄷ. 상황을 가정해 놓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ㄹ.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31.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강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어미의 젖을 찾는다.
- ② 아기는 기저귀가 젖으면 울어서 엄마를 부른다.
- ③ 공이 갑자기 눈앞으로 날아오면 반사적으로 몸을 피한다.
- ④ 지진이 발생할 징후가 있으면 동물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⑤ 화려한 버섯을 보면 사람들은 독버섯으로 의심하여 먹지 않는다.

32. [A]를 <보기>와 같이 도식화했을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성장하면서 변화하는 존재이다.
- ② ㉠은 ㉣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
- ③ ㉡와 ㉢는 모두 관념적 자아이다.
- ④ ㉢는 ㉠와 달리 언어적 표현의 주체가 되는 자아이다.
- ⑤ ㉣는 ㉡와 달리 본능적 자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5~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겨진다. 정신은 과연 물질, 곧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 ㉠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오래전부터 정신을 비물리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이원론이다. 이에 견줘 동일론은 정신은 육체, 그중에서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엇인가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네.” 하며 철저히 점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동일론은 이원론을 반박한다.

원자나 엑스선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을 가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상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이원론자는 정신도 ㉡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라이프니츠는 만일 X와 Y가 동일하다면 이들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제시했는데,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정신이 갖는다면, 이 원리에 따라 정신은 물리적 대상과는 다른 것이다.

대표적 이원론자인 데카르트는 그런 특성으로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제시한다. 그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사람처럼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해낼 수는 없으리라 보고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 힘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 먼저 컴퓨터 언어라는 개념은 이제 상식적인 것이 되었다. 컴퓨터 언어는 인간이 쓰는 언어에 비해서 구조와 내용의 면에서 단순하지만 그 차이라 하는 것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이다. 한편 데카르트의

[A] 저술이 나타난 이래로 수세기 동안 여러 학자들은 수학적 추론의 일반적 원리들을 이력저력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 기술자들은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했을 법한 ㉢ 기계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고서도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데카르트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로 이원론을 지지하는 또 다른 논증으로, 육체의 존재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지만 정신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든다. 의심하기 위해서는 내 정신이 ㉣ 또렷하게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육체와 정신 중 하나는 의심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지만 다른 하나는 갖지 않으므로 그 둘은 ㉤ 동일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 사실은 같은 사람인 정약용과 다산을 생각해 보자. 『목민심서』를 정약용이 썼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다산이 썼다는 것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다.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약용과 다산이 ㉔ 동일한 존재가 아닌 것은 아니다.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이 의심이나 생각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5. 독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윗글을 추천하고자 할 때, ㉔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㉔ 분에게 추천합니다.

- ① 감정을 정화하기 위해 감동적인 경험을 소개하는 글을 읽으려는
- ②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타인의 일상을 담은 글을 읽으려는
- ③ 학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기술에 적용된 원리를 설명하는 글을 읽으려는
- ④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사회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글을 읽으려는
- ⑤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논쟁적으로 다룬 글을 읽으려는

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의심은 할 수 있다.
- ② 이원론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에도 정신이 독립적으로 있다고 본다.
- ③ 원자나 엑스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리적 대상이 아니다.
- ④ 라이프니츠는 물리적 대상이 정신과 똑같은 특성을 갖더라도 그 둘은 다르다고 보았다.
- ⑤ 데카르트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출현하리라고 예상했다.

7. ㉔에 대한 동일론자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도 인간과 같은 정신을 가질 것이다.
- ②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는 인간과 달리 정신을 가질 것이다.
- ③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는 인간과 종류가 다른 정신을 가질 것이다.
- ④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컴퓨터는 인간과 달리 정신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 ⑤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컴퓨터도 인간과 같이 정신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8.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가) 악령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 없이 병원체의 존재를 가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나) ‘하늘에 태양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왼손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른손은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 ① (가)에서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악령을 끌어들이 필요 없는 것이겠군.
- ② (가)에서 ‘악령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악령이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겠군.
- ③ (가)에서 병원체의 존재가 감염병을 가장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병원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겠군.
- ④ (나)에서 왼손과 오른손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따라 동일한 대상이 아니겠군.
- ⑤ (나)에서 생각의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 까닭은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 때문이겠군.

9. [A]에 드러난 동일론의 주장에 대해 이원론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 뜻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동적인 측면만 따라할 뿐이고 사랑이나 두려움 같은 감성적 측면은 따라할 수 없다.
- ③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수학적 추론을 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 ④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하는 것에 불과하지 선택에 따른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비행 시뮬레이션이 실제 비행의 모방에 불과한 것처럼 기계의 수학적 추론은 인간의 수학적 추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10. 문맥상 ㉔~㉔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원자나 엑스선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고
- ② 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를
- ③ ㉔: 화학적인 조성을 띠어야
- ④ ㉔: 똑같은 특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 ⑤ ㉔: 독립적인 존재인

◆ 09 LEET 언어이해 23~25번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철학은 모든 학문 중에서도 최고의 지위를 지닌 제일 학문이라고 자처해 왔다. 이러한 자신감의 근거에는 철학적 앎이 최고의 확실성을 지니는 것이라는 확신이 깔려 있다. 그러나 철학의 자기도취는 종종 철학 자체 안에서도 도전에 직면하거나, 특히 회의주의가 그 도전의 중심에 있다. 궁극적 진리의 인식이 소명인 철학에서 의심을 생명으로 하는 회의주의가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철학사 초기에 나타난 고르기아스의 세 명제는 회의주의의 고전적 전형이다. 그에 따르면 첫째,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둘째, 어떤 것이 존재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으며, 셋째, 어떤 것을 알더라도 우리는 그 앎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다. 반지성주의 성향의 사람에게 이 극단적 견해는 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치명적 모순이 있다. 즉 고르기아스는 첫째, 극단적 회의의 주체인 자신이 존재함을, 둘째,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을 자신이 알고 있음을, 셋째, 아무것도 전달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자신의 앎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것을 부정하는 즉시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부정하게 되는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현대의 경우 극단적 회의주의는 알베르트의 '가류주의(可謬主義)'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특히 모든 철학적 명제의 생명을 좌우하는 '최종적 정당화'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최초의 자명한 명제에서 다른 명제들을 도출시켜 나가는 철학적 지식 체계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가 무기로 삼는

것은 뮌히하우젠 트릴레마(Münchhausen-Trilemma)이다. 이 트릴레마는 말을 타고 가다가 수렁에 빠진 뮌히하우젠 남작이 자신의 머리채를 위로 잡아당겨 빠져나오려 했다는 우화를 빗댄 것이다. 알베르트에 따르면 모든 하위 명제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최초의 확실한 명제를 설정하려는 시도는 다음 세 오류 중 하나를 반드시 범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실패한다.

- 무한 소급: 한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다른 상위 명제를 설정하지만, 이 제2의 명제는 제3의 명제를, 제3의 명제는 제4의 명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되는 식으로 상위 명제에 대한 요구가 끝도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최종적 정당화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순환 논증: 한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2의 명제를 끌어들이지만, 이 제2의 명제를 다시 제1의 명제를 통해 정당화하고자 하므로 이 역시 최종적 정당화로 볼 수 없다.
- 질차 단절: 계속되는 정당화 요구의 총족이 불가능하므로, 정당화 과정의 한 특정 단계에서 모든 논의를 중지시키고 하나의 명제를 절대 도전할 수 없는 도그마로 설정한다. 이는 합리적 논변의 지속을 단절하는 것이므로 최종적 정당화로 볼 수 없다.

이 트릴레마의 위력은 실로 막강해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철학적 정당화는 일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모든 명제의 불확실성을 절대화하는 알베르트 역시 치명적 오류를 범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즉 그는 이 트릴레마의 '절대적 정당성'에 '최종적으로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확실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명시적 주장'과 '함축적 행위'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화, 즉 '수행적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수행적 모순의 발견은 뮌히하우젠 트릴레마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최종적 정당화가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증명 방식이 바로 '귀류법적 증명'이다. 이 증명 방식은 명제 p 의 모순 명제인 $\sim p$ 가 언명되는 순간 $\sim p$ 는 자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음을 밝힘으로써 p 의 타당성을 우회적으로 증명한다. 즉 '확실한 인식은 없다'라는 알베르트의 명시적 주장은 '확실한 인식은 없다는 인식은 확실하다'라는 주장을 함축하므로, 그가 부정하려 한 '확실한 인식은 있다'라는 명제를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증명 방식을 통해 우리는 가류주의적 회의에 맞서 확실한 명제들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다.

회의주의는 극단적으로 치달을 경우 오히려 자기 파괴로 귀결되므로 그 자체가 철학의 궁극적 사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칫 독단론에 빠지기 쉬운 철학에 대해 회의주의는 생산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회의주의의 강력한 도전은 철학으로 하여금 거기에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한 면역력을 갖춘 정당화 논리를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철학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2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가류주의'는 '수행적 모순'의 문제점을 비판한다.
- ② '가류주의'는 '최종적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 ③ '최종적 정당화'는 '수행적 모순' 때문에 어렵다.
- ④ '귀류법적 증명'은 '최종적 정당화'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 ⑤ '귀류법적 증명'은 '수행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

24. 위 글의 핵심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철학사에 등장한 회의주의는 모두 논박될 수 있다.
- ② 회의주의는 제일 학문인 철학의 이념을 잘 구현하고 있다.
- ③ 회의주의는 철학을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에 부정되어야 한다.
- ④ 회의주의는 역설적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것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 ⑤ 회의주의는 극단적일 경우 오류이지만 철학 이론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25. <보기>의 ㄱ, ㄴ을 [A]의 개념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보 기>—

ㄱ. 우리의 마음에는 ‘완전한 존재’라는 확실한 개념이 있다. 그런데 ‘완전한 존재’가 개념적으로만 존재한다면 완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완전한 존재’인 신은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의 존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완전한 존재’라는 개념의 확실성을 보장해 준다.

ㄴ. 식물이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식물도 생명체이고, 모든 생명체는 ‘삶에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삶에의 의지’를 가지는 존재는 소중하며, 이러한 존재를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자연의 이법(理法)이기 때문이다.

- | ㄱ | ㄴ |
|---------|-------|
| ① 무한 소급 | 순환 논증 |
| ② 무한 소급 | 절차 단절 |
| ③ 순환 논증 | 무한 소급 |
| ④ 순환 논증 | 절차 단절 |
| ⑤ 절차 단절 | 무한 소급 |